

“도쿄올림픽서 12초대 뛰겠다”

아시안게임 100m 허들 8년만에 금 광주시청 정혜림

2016년 광주에 등지 틀며 기록 경신 매진
올 13초대 초 유지 ‘아시아 허들여왕’ 등극

“큰 대항아 부담이 컸는데 일반 시합들과 똑같다고 여기고 뛰었어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육상경기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정혜림(31·광주시청)은 27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우승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정혜림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켈로라 봉 카르노(GBK) 주 경기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 100m 허들 결선에서 13초 20으로 우승했다.

이날 결선 6레인에서 출발한 정혜림은 첫 허들을 넘을 때부터 선두로 치고 나갔고, 10개의 허들을 실수없이 넘으며 스피드를 끌어올린 정혜림은 선두를 뺏기지 않고 결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이번 메달은 한국 육상이 8년만에 이뤄낸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자 정혜림 개인에게는 지난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부진했던 과거를 지워버리는 영예로운 상징이다. 정혜림은 현재 자카르타 선수촌에서 회복 훈련 중이다.

부산 토성초 4학년 때 장거리 선수로 육상을 시작한 정혜림은 스피드가 좋다는 주변의 권유로 단거리로 전향해 부산 중앙여중, 부산체고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갔다.

안산시청과 제주시청 등의 실업팀에서 활동하며 13초 중반대를 유지하던 정혜림은 2016년 광주시청으로 새롭게 등지를 틀며 기록 경신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의 혹독한 훈련 일정 속에 정혜림은 순발력과 근력, 근지구력을 중점적으로 훈련하며 13

초 초반대의 기록이 유지되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2016년 고성통일전국실업육상대회에서 13초 04로 우승을 거뒀고 2017년 7월 인도에서 열린 제2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3초 16으로 결선을 끊는 등 그동안 아껴뒀던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계속된 상승세 속에 8월에는 2017 런던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도 출전했지만 13초 37로 예선 탈락하며 세계의 벽을 실감했다.

미국과 유럽의 12초 중반대의 쟁쟁한 선수들 틈에서 아시아 선수가 결선에 오르기엔 무리였다.

정혜림은 “런던대회는 메달이 목표가 아니라 기록에 대한 도전이었다. 기록이 아쉬워 속상했지만 그때의 경험이 나를 더욱 성장시켰던 것 같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런던대회 이후 정혜림은 더욱 노력하며 기록 경신에 매진했다. 지난 1월 제주 전지훈련과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 실전 감각을 키워나갔다.

지난 5월 2018 오사카 골든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에서 13초 13을 기록했고, 6월에는 일본 후스스프린트2018에서 13초 11, 제4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도 13초 14를 기록하는 등 13초 초반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갔다.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상에 서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허들 여제’로 등극했다.

금메달을 목에 건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정혜림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바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정혜림은 “2020년 도쿄올림픽 출전을 목표로 12초대에 도전할 것”이라며 “나



지난 2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켈로라 봉 카르노(GBK) 주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0m 허들 결선전. 한국 정혜림이 1위로 결선을 통과한 뒤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가 더 들겠지만 더 좋은 일은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 다음 활약도 기대했다. 정혜림은 29일 배잔미(광주시청) 등과 함께 400m 계주에 참가한다.

한편, 정혜림의 금메달 소식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축전을 보냈다. 이 시장은

축전을 통해 “모든 장애물을 이겨내고 마침내 손에 쥔 금메달, 그래서 더욱 빛나고 값집니다”면서 “2018 아시안게임 육상 여자 100m 허들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정혜림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 생산연령인구 첫 감소...고령사회 진입

지난해 3619만6000명...전년비 11만6000명 줄어
광주 150만 붐괴...전남 65세 이상 22% ‘전국 최고’

지난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살 이상 노인 비중은 14%를 처음 넘어서며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전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22%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여성 가구주 비율이 34.0%로 높았다.

◇광주 150만 붐괴=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총 인구(외국인 포함)는 5142만명으로 전년(5127만명)에 견줘 0.3%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수도권 인구는 255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 인구 비율은 전년도(49.5%)에 비해 증가 추세다.

세종이 3만4000명 늘어 전년보다 14.1% 증가했고 제주 3.0%, 경기 1.4% 등으로 증가세가 컸고 광주는 149만6000명으로 전년도(150만2000명)보다 0.4%, 전남은 179만2000명으로 1년 전(179만6000명)에 비해 0.2%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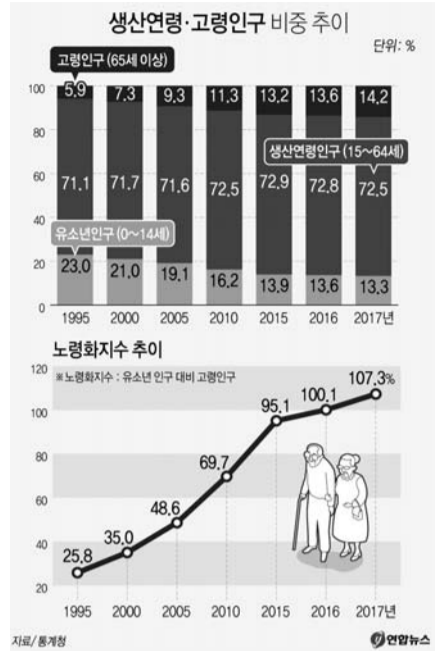
특히 최근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2016년(3631만2000명)과 비교해 11만6000명(0.3%) 줄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년도(13.6%)보다 0.6% 늘어났다. 노인인구는 지난해 712만명으로 2016년(678만명)보다 34만명 늘어났다. 전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생산연령인구 비율은 65.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고령은 유소년 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노령화지수가 526.7로 경북 군위(647.5), 경북 의성(616.9) 다음으로 높았다. 고흥·신안(69위)·곡성(13위)은 노령화지수 상위권에 포함됐고 광주 광산구는 229개 시·군·구 중 노령화지수가 낮은 지역(45.6·225위)으로 꼽혔다.

◇광주 외국인 증가율 높고=광주지역 외국인인 2만6000명으로 전년도(2만4000명)보다 9.9% 늘어 증가율로 보면 제주(16.7%), 인천(10.2%)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외국인인 3만7000명으로 집계됐고 영암의 경우 전체 인구(5만8000명) 중 외국인(5000명) 비율이 8.3%로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전체 외국인은 147만9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6%(6만5000명) 늘었고 전체



외국인의 62.2%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 58만3000가구-전남은 74만4000가구=지난해 전체 가구는 2016년 8000 가구로 2016년(1983만8000가구)에 견줘 33만가구(1.7%) 증가했다. 전국 가구 수가 2천만을 돌파한 것은 195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가구가 1인 또는 2인의 소규모 단위로 쪼개지면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는 58만3000가구로 전년도보다 7000가구가 늘었고 전남은 73만7000가구에서 74만4000가구가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1인 가구는 17만1400가구를, 2인 가구는 14만5900가구를 차지해 전체 가구의 54.4%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고 전남에서는 1인 가구가 23만2000가구, 2인가구 23만6000가구 등으로 1·2인가구 비중이 62.9%에 달했다. 광주·전남의 1인가구 비중은 각각 29.8%, 31.6%로 전국 평균(28.6%)보다 높았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6%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26.7%), 3인가구(21.2%) 등의 순이었다.

1인 가구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70살 이상(18%)이 가장 많았고, 30대(17.2%), 20대(17.1%) 순이었다. 거주지 유형별로 일반가구를 분석하면 광주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비중이 64.4%로 세종(69.3%) 다음으로 높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자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인하

논산~천안 4500원 ‘절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이상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900원 수준으로, 9400원

인 천안~논산고속도로 요금은 4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한다.

/연합뉴스

“김경수, 드루킹과 공모 대선 겨냥 댓글조작”

특검팀 수사 결과 발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함께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한 집중적인 댓글조작을 벌였다고 허익범 특별검사가 결론 내렸다.

특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 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길 가능성

이 있는 만큼 양측은 법정에서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재판과정에서 드루킹과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등 10명을 댓글조작 혐의로 앞선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 강 료 : 22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펜션·가든 부지 매매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